

“전남 떠난 청년 5년간 6만2천명…청년정책은 구호뿐”

인구 3만명 도시 2곳 사라진 섬
청년비전센터 표류 등 대응 미비
정철 도의원 “청년이 지역 미래”
도정질문서 실질 대책마련 촉구



작공조자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154억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청년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운 청년비전센터 예산은 매년 편성·이월·불용만 반복되고, 자연 과정에 청년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청년비전센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이미 목포시에서는 유사 기능의 ‘청년쉼터’가 개소됐다”며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청년센터가 없고, 운영 중인 센터조차 예산과 인력 차이로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청년비전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쏟기보다 시군청년센터를 강

터 건립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했지만, 화했다면 청년 유출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82명으로 시작된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이 현재 356명까지 늘었고, 가족 동반 이주까지 고려하면 597명이 유입된 셈”이라며 “이들이 지역의 청년이자 생활인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차원의 지원사업이 종료돼 거주 시설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 유학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청년 없는 지역이 미래는 없다”며 “전남도가 더 이상 공허한 홍보성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근산 기자



“경로잔치서 웃놀이 즐겨요” 18일 광주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한가위 경로잔치’에서 어르신들이 웃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도, 저출생 극복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출생수당 등 맞춤 지원 결실

전남도가 18일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2분기 합계출산율도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기는 등 적

극적이고 차별화된 저출생 극복 정책이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제한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2024년 전남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97명(5.1%) 증

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06명(6.2%) 상승했다. 특히 2024년 결혼·출산 연령대(30~34세) 인구 순유출(54명)에도 불구하고, 출생 증가세를 보인 점은 외부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가 아닌 실제 전남 거주자의 출산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김영록 지사는 “전문가들은 1990년 대생이 결혼 적령기가 된 향후 10년이 우리나라 출생을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적극적인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출생을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연구원 기관평가 우수…경제일자리재단 낙제

11곳·기관장 13명 경영진단
문화재단 등 3곳 A등급 받아

광주시 출연 기관·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광주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18일 광주시가 공개한 2024년 실적 기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11개 기관 중 광주연구원·문화재단·기후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곳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여성가족재단·디자인진흥원·글

로벌광주방송·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신용보증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7곳이었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하위권인 C등급은 없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75점 미만으로 평가 대상 기관중 유일하게 D등급으로 분류됐다.

기관평가 11곳에 테크노파크와 사회서비스원을 더한 13개 기관장 평가에서는 광주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 2곳이 A등급을 획득했다.

B등급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기후에너지진흥원·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디자인진흥원·문화재단·여성가족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신용보증재단 등 8곳이었다.

C등급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글로벌광주방송·테크노파크가 받았고, 경제일자리재단은 기관·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S등급은 없었고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곳 역시 없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출연기관·기관장 평가를 지난해부터 자체 평가로 전환해 신뢰성을 높였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개선과제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이철 도의원 “완도 섬 지역 광역상수도 확충 절실”

넙도 등 식수난 해소 강력 촉구

넙도·서넙도·소안도 등 완도 섬 지역 광역상수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18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섬 지역의 극심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완도 섬 지역의 식수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며 “넙도의 경우 지난 2023년, 무려 317일간 ‘1일 급수, 6일 단수’의 제한급수를 실시했고, 이는 기존 완도지역 최장 기록인 100일을 넘어



선 수치다”고 지적했다.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 다른 섬들도 10개월 넘게 제한급수를 겪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넙도와 서넙도 주민들은 해수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거나 생수를 구입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해수담수화된 물의 이질감 때문에 샤워나 목욕을 할 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육지에서는 상상

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 더는 이런 고통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제는 전남도가 직접 나서 상수도 인프라 격차를 해소, 섬 주민 누구나 걱정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넙도·서넙도는 노화에서 해저관로를 설치·연결하는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완도군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해남 북평에서 완도 노화도를 연결하는 보길·노화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2027년말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정근산 기자

국립정원문화원 담양에 개원…정원문화 선도 기대감

국제 네트워크 등 구축

정원문화 산업 진흥과 정원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국립정원문화원이 18일 담양에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이개호 국회의원, 정철원 담양군수,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원문화원은 수요 맞춤형 정원분야 미래 인재 양성, 대국민 정원문화 서비스 강화, K-가든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중점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원문화를 국민의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원 전문 자격제 도입과 표준화를 통해 정원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콘텐츠·프로그램을 확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국제 정원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K-가든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가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원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 정원문화의 뿌리인 담양에서 국내 첫 국립정원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개원은 전남도가 노력해 얻은 값진 결실로,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K-가든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담양 소재원을 주제로 ‘애양단’ 정원을 선보인 바 있다.

정근산 기자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청소년 인권
숏폼 공모전

공모 기간 »
2025. 9. 15(월) ~ 10. 17(금)

참가 대상
광주 초·중·고 재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3인 가능)

접수 방법
QR코드 접속후 신청서, 동의서 작성 후 접수
- 이메일 접수 : jndn1011@naver.com
- 카카오톡 접수 : jndnnews

출품규격
- 파일형식 : 30초~60초 미만 길이 mp4, mov, avi
- 화면비율 : Full HD 이상 (9:16 세로비율)
- 해상도 : 화질 1080 x 1920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작품 영상 파일

공모 주제
청소년 인권·평화 관련 주제 (홈페이지 참조)

시상 발표 및 시상식 일정
2025년 11월 초 전남매일 홈페이지(www.jndn.com) 공지

구분		작품수	시상금	시상
대상	1	2,000,000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상품	
최우수상	1	1,500,000		
우수상	1	1,000,000		
장려상	6	300,000	전남매일상, 상품	
입선	15	100,000		

※ 모든 시상자 기념품 제공 (심사후 시상 작품수는 변동사항 있을수 있음.)
※ 팀으로 선정시 대표자에게 시상금 입금이 됩니다.

유의사항

- 표절, 타인의 저작물 모방 시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
-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나, 교육 목적의 비영리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처

청소년 인권 숏폼 공모전 행사위원회 062-720-1017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전남매일